

장애인과 일터

Vol.337

2023 MAY
KEAD Monthly Magazine

몽글몽글, 감사의 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MAY Vol.337

몽글몽글, 감사의 마음

푸푸른 하늘, 부드러운 공기, 곳곳에 핀 각양각색의 꽃들.
 계절의 여왕 5월은 팬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과 감사함을 전하는 행복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감, 두드리다

- 03 **공감 테마**
몽글몽글, 감사의 마음
- 04 **생각 더하기**
휠체어를 타는 여자라서 감사합니다!
- 06 **공감 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08 **KEAD 사전**
'장애감수성'에 대하여
- 10 **일터 트렌드**
친환경제품 검수원

공감, 만나다

- 12 **행복한 내일**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어요.”
- 16 **함께하는 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일터를 꿈꿉니다.”
- 20 **우리는 KEAD**
“바다 비누처럼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일합니다!”
- 24 **KEAD 포커스**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보조공학기기 바로 알기
- 28 **세계는 지금**
스웨덴, 복지 예산 삭감에도 장애인고용 유지하는 이유

공감, 함께하다

- 32 **트렌드 보고서**
음료업계, 제로 칼로리 열풍
- 34 **배리어프리 여행**
책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
서울 경의선 숲길
- 36 **고민톡 상담톡**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 38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39 **KEAD 톤**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뇌병변장애인 편
- 41 **KEAD 뉴스**
- 42 **KEAD SNS**



몽글몽글,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사람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은 지치고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지요. 사소한 것들에 짜증이 일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행복의 크기를 재기 시작합니다. 백해무익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채우기도 하고요. 낯선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싶을 때,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노트도 좋고 핸드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을 하나둘 적어보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들어갈 출입문을 잡아줬던 일, 때를 잊지 않고 푸룽푸룽 돌아나는 싱그러운 여린 잎, 사랑스럽게 꼬리를 흔드는 반려견, 보고 싶었던 친구의 반가운 전화, 우연히 발견한 맛집, 포근한 이불과 베개가 있는 쾌적한 잠자리 등의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말이죠. 벌써 조금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동기부여가 아서 워드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달이기도 하지요. 평소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지는 몽글몽글한 계절이시기를 기대합니다.



휠체어 타는 여자라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바꾸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글 박혜정(지체장애)



불행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음가짐

감사할 줄 모르던 내가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건 사고 후부터였다. 꿈 많은 여고 시절의 어느 날 아침, 등교 하던 중 건물 6층에서 180kg의 커다란 간판이 나를 덮쳤다. 이 사건으로 척추 신경이 다친 나는 지금까지 겨드랑이 아래로 몸의 삼분의 이가 마비된 채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세상에 대한 원망밖에 들지 않았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에 죽고만 싶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내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던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다. 나를 끔찍이 예뻐해 주시던 할아버지는 내게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엄청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겪더라도 어쨌든 살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마음가짐을 바꾸니 삶의 좋은 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감각이 없어서 대소변을 실수하고 아예 일어설 수조차 없었지만, 내게 남겨진 더 좋은 것들이 있었다. 계속 불화가 있었던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딸을 위해 두 분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이가 좋아지셨다. 또 한때 부모님의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때때로 힘들었던 나였지만, 사고 후에는 나의 건강과 행복만을 바라시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편해졌다. 그리고 나 역시 부모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의 조건에서 행복해지는 법

그렇게 마음을 점점 회복하며 마음가짐이 바뀌니 뭐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미소도 자주 짓게 되었다. 아파트 현관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모두 휠체어를 타고도 마음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주었다. 사람들이 그리 생각해주니 왠지 힘이 났고 뭐든 더 열심히 하게 됐다. 그렇게 20개국을 여행할 용기도 낼 수 있었다. 그 후 따뜻한 사람을 만나 사랑스러운 두 딸도 얻었다. 딸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엄마가 많은 걸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다른 애들보다 많은 일을 스스로 해냈다. 이 역시 딸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사고 후 지난 29년의 세월을 짧은 글에 다 담을 수 없지만, 마음을 바꿔 감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삶은 진정으로 행복한 일들이 펼쳐졌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제는 휠체어를 타는 좋은 점 정도는 수없이 나열할 수 있다. 어딜 가나 의자가 필요 없고, 비행기도 대부분 앞좌석에 먼저 태워준다. 연극, 공연 등의 관람이나 강의를 들으러 가도 우선 입장이나 따로 안내를 해주고, 여러 장애인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에 유튜브 채널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또한, 휠체어에 앉아 낮은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 겸손함도 배울 수 있었다.

올해 초, 정수기의 뜨거운 물이 허벅지 위에 쏟아져 2~3도나 되는 화상을 입었다. 마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화상을 입을 일이 아니었다. 나의 부주의를 후회하고 내 몸 상태가 억울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고, 곰곰이 생각하니 뒷면엔 역시나 좋은 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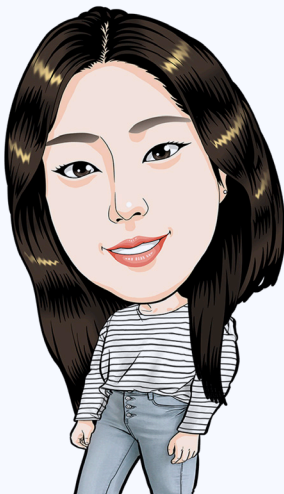
감각이 없으니 수술을 해도 치료를 해도 생활을 하면서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제는 잘 아물어서 방수 테이프를 일일이 붙여가며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도 새삼 감사하다. 나는 진심으로 나의 몸뚱이에 감사한다. 또 휠체어 타는 내가 좋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감사할 일 뿐이다.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감사의 달, 마음을 전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감사한 일이 많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현재의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도움을 준 이에 대해 고마움을 나름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이 저마다의 감사함을 전한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이들의 마음을 알아보자.

정리 편집부 그림 CANEPAZZO



이미선 전임평가사
서울북부지사 취업지원부

“
감사한 마음과 태도는
긍정적인 시각을
만들어줘요

서울북부지사 취업지원부 판정평가팀에서 직업능력평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분들에게 가장 고마웠던 일은 작년에 지사 개소식 사회를 맡게 됐던 때입니다. 처음으로 큰 행사를 진행해 보는 터라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긴장되고 떨렸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리허설을 마쳤는데 동료들과 선배들이 저에게 다가와 너무 잘했다며 칭찬해주셨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그 다음 날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에 코끝이 찡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감사한 마음과 태도는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서도 덜 민감해지고요. 그로 인해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사는 남편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부탁하는 어떤 일에도 힘든 내색 한번 없이 꼭 들어줍니다. 쉽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고 표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손희삼 과장
대전지역본부 기업지원부

“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감사함을 알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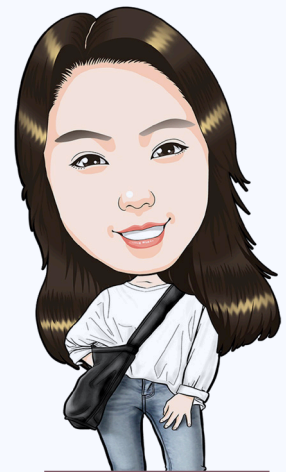
대전지역본부 기업지원부에서 장애인 고용현황 신고접수 및 고용부담금 징수업무, 고용장려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 벌써 7년째인데 그동안 거의 유사한 업무만 해오다 보니 동료들이 저에게 업무적인 부분을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껴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덕목이 바로 ‘감사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서양 격언처럼 내가 마주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감사와 긍정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소중한 것을 잃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숨을 못 쉬면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말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저의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있는 소중한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혁신기획부 ESG경영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 공단이 지역사회,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발굴하여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함을 느꼈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요. 평소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에 시간이 되면 산에 가는데, 정상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지사에서 근로지원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 고객 한 분이 덕분에 일을 잘하고 있다며 한 번씩 전화로 고마움을 표현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의 가치와 영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곤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머니께서 무조건적인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덕분에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어머니의 세월이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수록 좀 더 신경써서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서연 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혁신기획부

“

감사함이란 모든 일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지요

‘장애감수성’에 대하여 다름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해요!

‘장애감수성(Disability Empathy)’이란 ‘장애’와 ‘감수성’이 결합한 것으로
인권감수성과 같은 맥락이다. 비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여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심리 사회적 공감을 의미한다.

글 편집부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감수성’의 차이

우리는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장애감수성’이란 말은 웬지 익숙하지 않다. 두 개념의 차이는 뭘까.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은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인식, 교육 등의 요소를 개선해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반면 장애인 감수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존중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로 장애인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이며, 장애인 감수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높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함께 실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출발

장애감수성은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대화나 인터뷰,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인과 함께할 때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하면 음식점 앞 키오스크 주문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으로 쓰이고 있다. 직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주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터치패드의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외감과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발 더 나아가 키오스크 업체에 개선점을 전달하는 것도 발전적인 생각이 된다.

더불어 청각장애인과 소통방식은 상대방의 표정, 몸짓, 행동 등 비언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쉽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청각장애인은 소리나 경보음을 듣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때 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것이 좋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장애감수성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함으로써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중요한 덕목이 된다.

장애감수성 에티켓 7 우리 함께 해봐요!

- | | |
|-------------------------------------|--|
| 1.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 ▶ 장애는 성별, 인종이 다르듯이 한 사람의 특징, 다양성으로 인정해주세요. |
| 2.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봐 주세요 | ▶ 과잉 친절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
| 3. 차별 용어를 쓰지 말아주세요 | ▶ 정상인·일반인은 잘못된 표현, '비장애인'이 바른 표현이에요. |
| 4. 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은 어디든 출입 가능해요 | ▶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
| 5. 느린 학습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해요 | ▶ 달리기할 때 속력이 다르듯이 학습이나 배움의 속도는 모두 다 달라요. |
| 6.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장애인에게도 당연해요 | ▶ 장애인이 승하차할 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 7.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양보해주세요 | ▶ 장애인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우선이에요. |

친환경제품 검수원 중증장애인, 친환경제품의 품질을 책임지다

근래 들어 플라스틱제품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함께 ESG경영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시장이 급부상 중이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빠르게 읽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업체 쪽으로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나섰다.

글 편집부

*2022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바이오 신소재 산업에서 새로운 직군 발견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유럽 기후법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및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가 담긴 라벨링 부착 의무를 추진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가 산발적이고 이례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직접 겪으며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이유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른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도 당연지사다. 친환경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가해 포털 사이트 연관 검색창을 보면 업사이클링, 제로 웨이스트(NO 플라스틱)에 대한 키워드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환경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국내 기업들도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의 단계적 도입과

확대를 추진하며 관련 업체의 산업 육성에 힘쓰는 추세다. 공단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친환경제품 검수원'이란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했다.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친환경제품 검수원이란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는 친환경제품 제작공장에서 제작부터 검사, 포장까지 일련의 제작 공정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이 직군은 제품의 품질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업무 습득이 까다롭지 않아 정신적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모색할 수 있었다.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취업 취약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 자기 정체성, 건강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은 공단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단은 이러한 특성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을 친환경제품 검수원으로 취업시키기 위해 먼저 인천광역시 소재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원활한 제품 생산과 장애인고용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수, 편의시설 설치 등의 요건을 검증한 다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스마트 공장' 설비를 지원했다. 스마트 공장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친환경제품 검수원, 직무 확산 기대감 상승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써 서른 명 이내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했다. 이에 공단은 관찰 지사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 구직자를 모집했으나 구인난을 겪기도 했다. 업체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거주 지역과 거리가 멀어 지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과 업체는 개선점을 함께 논의한 후 인근 지하철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구인과 면접을 상시로 실시해 정신적 장애인 훈련생들을 모집했다.

면접을 통과한 훈련생들은 지원고용을 통해 현장훈련을 받았다. 주요 업무로는 제작된 빨대에 대한 1차 육안검수, 제작 후 건조작업을 거친 후 진행되는 개별포장과 2차 검수 등이었다. 업무수행 난이도가 높지 않아 훈련생의 직무 적응에 어려움이 없었고 열세 명의 훈련생들이 훈련을 수료한 후 일곱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로써 미래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공단은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화를 위해 참여업체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먼저 친환경제품의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사용과 함께 공단(고용전반지원)과 시범사업 참여사업체(고용), 대기업(친환경 생분해 제품 활용)으로 이어지는 협업을 추진했다. 바이오 신소재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에 스마트 공장과 연계한 '친환경제품 검수원' 직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어요.” 이강용 KB국민은행 CoreNext부 개발자

이강용 개발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소통’이다.
청각장애인인 그는 스스로를 비장애인과 다르다고 생각해 장애 뒤에 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고의 개발자가 되기 위해 매일 더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그를 만났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KB국민은행 CoreNext부에서 근무하는 이강용 개발자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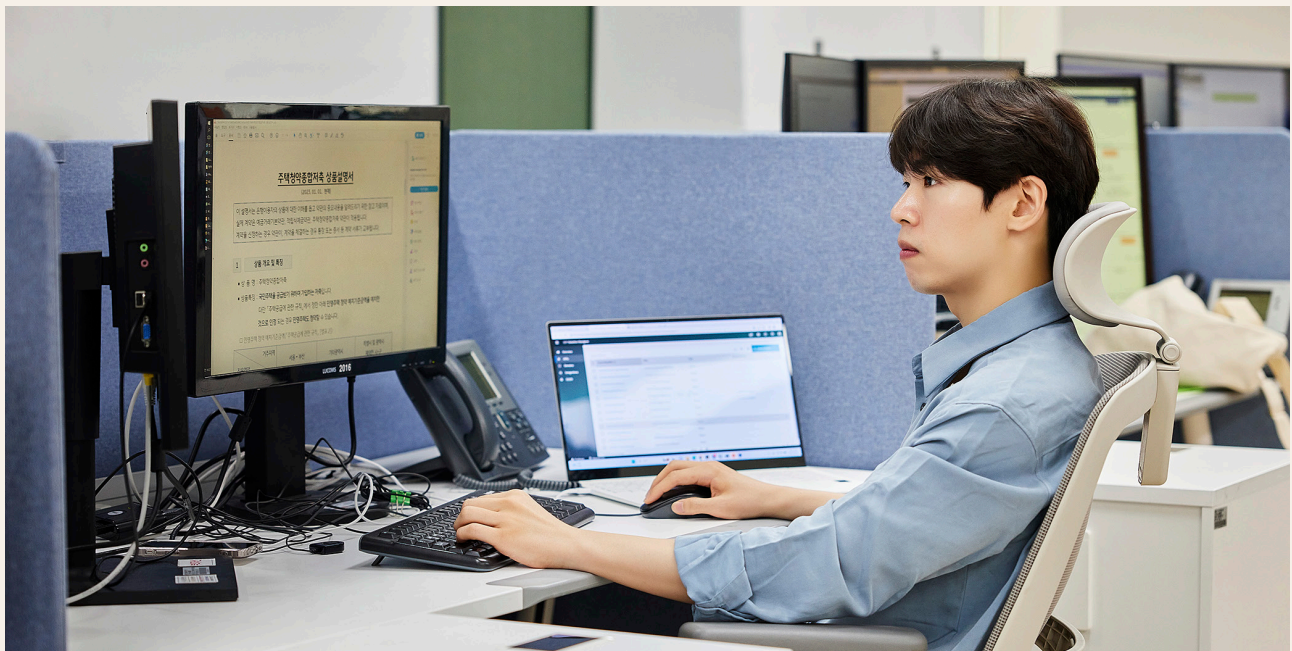
저는 2022년 KB국민은행 CoreNext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강용입니다. 지금은 ICT 부문의 모델링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개발에 앞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취업 전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디지털 코딩 아카데미(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와 협업)’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 장애 환경과 개발 업무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수료 후 취업 준비과정이 길어지니 초조하더라고요. 친구들은 1차 합격을 하는데, 저는 1차도 붙지 못했으니까요. 동기들에 비해 제 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떨어지지만은 않을 거다. 분명히 빛을 볼 때가 올 거다’라는 마음으로 취업 준비를 이어갔죠.

입사 후 가장 힘이 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아무래도 장애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도 했고, 마음도 다잡았지만 생각 이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동료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제 장애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배려심이 깊어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입사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나 자신’과 ‘KB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강용 씨가 진지한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일반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생할까지, 청인들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하셨어요.

사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보조기가 있어도 각각의 소리가 아닌 하나의 소음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여럿이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대일 환경에서 대화하며 관계를 쌓았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찾았죠. 작은 관계부터 유지해 점차 넓혀가는 것이 저만의 비결입니다.

개발자로 일하며 이강용 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자존감과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다 저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웃음)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입사 후 실무에 투입되니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업무를 더 열심히 배워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하루빨리 능력을 길러 모두에게 힘이 되는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설계 업무를 새로 맡았는데요, 비록 마무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끝마쳤을 때 뿌듯하며 보람찼고, 일이 더 재미있어졌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환하게 웃고 있는 이강용 씨와 동료들



동료들과 업무 상의 중인 이강용 씨

이강용 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당장 지금은 1인분도 해내기 어렵지만요. (웃음) 제 몫을 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제 장애를 보지 않더라고요. 결국 장애를 가장 의식하는 건 제 자신이었어요. 그것만 극복한다면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두려움을 깨고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일터를 꿈꿉니다.”

장애인 일자리 함께 모색하는 (주)케이디텍

(주)케이디텍 사무실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다는 김남기 대표의 소신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인증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고 172명의 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주)케이디텍을 찾아가 모두를 위한 일자리에 관한 철학을 들어봤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미소를 짓고 있는 (주)케이디텍 직원들의 단체사진



장애인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터

(주)케이디텍의 사업 분야는 방대하다. 홈쇼핑 운영을 비롯해 PC 제조와 판매, 의료기기 수리, 문화재청 경북궁 야간 경비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발휘해 왔다. 2010년 설립 이래 이처럼 다양한 사업분야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남기 대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학과 교수직을 그만두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고민하다 전북에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일자리에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제 단짝 친구는 장애인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늘 저보다 운동도, 공부도 잘했죠. 지금은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잘 맞는 일을 만나면 무한대로 확장합니다. 저희가 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이유 역시 직원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더 많이 발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케이디텍은 현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 소재 학교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하며 새롭게 범위를 넓혔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으로 배치되며 야간 경비원과 학교 미화,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시험 감독 보조, 도시락 및 위생키트 배송 업무, 학교 청소 지원, 소독 방역처럼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이다. 개중에는 영등포구 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의 임시 거주지를 청소하고, 말동무를 해주는 장애인 근로자도 있다.



회의하고 있는 (주)케이디텍 직원들의 모습

서로에게 한발짝 더, 인식개선 활동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충분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꺼리거나, 파견 사업체에서 장애 이해도가 낮아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어려움을 겪는 날들도 있었다.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이었지만 사회적 봉사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주)케이디텍은 현장 배치 전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인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맞춤형 훈련을 통해 완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도 충분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재능을 펼칠 토대를 만드는데 주력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배치된 학교나 기관 등 현장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인력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업무 만족도도 높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원들의 업무 적응은 꾸준한 반복과 연습으로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먼저 입사한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신입 발달장애인 직원을 직접 교육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시작도 전에 안될 거라고 말했지만 변화는 뚜렷했지요.”



업무 상의를 하고 있는 김주현 씨

모두를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주)케이디텍은 사회적기업 최초로 학교 내에 경비 업체로 진입한 기업이다. 선발주자이기에 학교기관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유연한 도급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자부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터 적응을 위한 내부 교육 시스템을 탄탄하게 갖춰가고 있으며 중증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주)케이디텍은 이렇게 쌓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취

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책임임을 견지하고 실행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비장애인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점차 저마다의 장애를 안게 되니까요. 약자를 위한 일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견 대신 ‘함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케이디텍이 함께하겠습니다.”

미니 인터뷰



“장애인고용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갈 파트너를 기다립니다.”

김남기 대표

(주)케이디텍은 전북 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출발해 현재까지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모든 임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동안 파트너 기업과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는 더 많은 사업 분야로 확장해 장애인고용의 양적 성장을 견인하려 합니다. 언젠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첫 번째 코스닥 상장도 꿈꾸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취업을 꿈꾸는 분이 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케이디텍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좋은 일터를 만들고 함께 성장시키는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취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경영지원본부 김주현 과장(지체장애)

경영지원본부 과장으로서 각 사업부의 자금 결제 및 직원 급여, 회계 총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입사한 지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입사 직후에는 기한이 정해진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데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니 모두 해결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둘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회계 자격증을 새롭게 취득해 더 많은 역량을 펼치고 싶어요. 선배로서 후배에 도움이 되는 직원으로 회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 나은 일터를 꿈꿉니다.”

전홍준 전무이사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개성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양성은 회사의 잠재력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이지요. 그렇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케이디텍 내부에서 가장 활발한 공간은 교육장과 회의실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터놓고 이야기하며 성과를 공유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이 한 전문가의 높은 지능을 능가하는 신바람나고 행복한 일터로 (주)케이디텍을 바꾸고 싶습니다.

“바다 비누처럼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일합니다!”

감사실 감사부 청렴감사팀 최진우 팀장, 허새잎 과장, 김미리 과장

실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비누처럼 청렴감사팀의 존재는 그러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렴문화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때론 받지 않아도 될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은 씻어내고 향기만 남기는
이 일에 왠지 모를 사명감을 갖게 된다는 세 사람을 만나 손수 비누를 만들어봤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비누를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은 최진우 팀장, 허새잎 과장, 김미리 과장(왼쪽부터)

청렴감사팀, 바다 비누를 만든다

비누 공방에 앉은 세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른다. 급박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조금 늦게 도착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비누 베이스를 ‘치킨무’ 크기로 깎둑썰기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손을 조금씩 놀리며 방금 처리하고 온 업무와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손으로 뭔가 만지고 자르니까 환기되는 것 같지 않아요?” 허새잎 과장이 후련한 한마디를 내뱉자 이내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에도 긴장 풀린 웃음이 감돈다.

오늘 만드는 비누는 ‘MP 비누’로, 이름에 내포된 뜻처럼 Melt(녹다), Pour(붓다)를 반복하는 작업이 주를 이룬다. 비누 베이스에 열을 가하면 점도가 높은 액체로 변하는데 천연 향료, 보습제 등의 원하는 재료를 혼합해 붓고 굳히면 완성된다. 작업은 간단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건 어떤 색과 향을 고를지에 대한 선택이다. 선생님이 직접 만든 샘플 비누를 보여준다. 바다의 단면을 표현한 비누 샘플엔 3개의 바다층이 다른 색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선생님이 깎둑썰기한 비누 베이스를 녹일 동안 세 사람은 바다층을 표현할 3개의 천연색소를 골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허새잎 과장과 김미리 과장은 선생님이 만든 샘플 비누와 같은 파란 계열의 색소를 고르며 안전한 길을 택했다. 반면 어떤 색을 고를지 고민하던 최진우 팀장은 김미리 과장의 추천에 힘입어 분홍, 보라, 주황색을 골라 조금 실험적인 길을 걷기로 한다. 세 사람은 서로의 바다가 어떻게 완성될지 궁금하다며 기대감을 서서히 올렸다.

우리가 만드는 청렴이라는 바다

세 사람 앞에 직육면체의 긴 실리콘 몰딩이 각각 놓였다. 바다의 단면, 모래자갈층, 바다색 1층, 2층, 3층 그리고 물거품층을 순서대로 갈아 올릴 예정이다. 모래자갈층엔 녹인 비누 베이스와 곡물을 섞어 올리고, 나머지는 비누 베이스에 다양한 색소와 한 가지의 향료를 섞어 제조한다. 어떤 향이 어울릴까? 주저하는 최진우 팀장과 달리 허새잎 과장은 평소 좋아하던 플로럴 계열의 라일락 향을, 김미리 과장은 비누 향과 흡사한 프레쉬오션 향을 선택했다. 최진우 팀장은 오렌지 계열의 색소와 어울리는 스윗오렌지향을 택했다. 베이스에 색소를 섞는 세 사람에게 넌지시 업무 이야기를 물어보자, 미소 띤 얼굴로 차근차근 답변을 준비한다.

단어 ‘감사(監査)’를 풀이하면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감사실 소속인 청렴감사팀은 부패 방지, 청렴도 제고,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며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수립하여 수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부 직원과 장애인 근로자분,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제도적 보완 개선에 힘쓰고 있다. 기존에 2년 동안 같은 부서에 있던 두 사람과 달리 올해 팀에 합류한 허새잎 과장은 팀에 들어오기 전과 후, 감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전에는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 감사실을 견제했다면, 이제는 ‘왜’ 감독하고 검사하는지에 방점을 찍어 업무를 보고 있죠. 올바른 방향, 청렴을 향한 노력이자 과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라고 허심탄회하게 고백했다. 감독하고 검사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세 사람은 감시를 위한 감독이 아닌, 청렴한 문화를 안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주십사 부탁했다.



비누 베이스를 '치킨무' 크기로 썰고 있는 모습



김미리 과장이 비누 베이스에 색소를 넣고 있는 모습

감사(監査)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感謝)합니다

청렴감사팀의 노력은 작년에 빛을 받았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 단계 격상한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진우 팀장과 김미리 과장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허새잎 과장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이에 김미리 과장은 머쓱해하며 청렴감사팀이 이룬 결과가 아닌, 공단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이룬 결과기에 더 값진 성과라고 답했다. 이에 최진우 팀장은 “저는 저희 공단 직원분들의 윤리 인식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봐요. 기준이 높은 만큼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잘하고 있다고 셀프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베이스에 색소를 섞어 다른 층을 내는 비누가 완성되는 것처럼, 공단의 청렴도도 하나씩 쌓여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것이리라. 세 사람이 입을 모아 강조한 올해 목표는 ‘결과 내는 일에 급급하고 만족하는 팀이 아닌, 우리 직원분들에게 과정을 잘 설득하고 차근차근 밟아나가 모두가 동의하는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심해의 바다빛을 간직한 비누를 완성한 김미리 과장, 청량한 푸른빛의 비누가 인상적인 허새잎 과장, 그리고 해질녘 해안의 비누를 표현한 최진우 팀장. 딱딱하게 굳은 비누를 5등분해 완성품을 받아 드는 표정이 공방에 들어올 때와 사뭇 다르다. 최진우 팀장은 마지막으로 공단 직원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다.

“비위를 알게 되셨다면, 그리고 사소한 거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해 주세요. 이 비누처럼 사소한 티끌이라고 깨끗이 닦아 거품을 함께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청렴한 직장생활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주를 위해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 체험 소감 한마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최진우 팀장

둘째가 올해 유치원에 갔어요.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늘 걱정이 되는데 오늘 만든 이 비누가 격려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손을 씻곤 하잖아요. 집 안의 위생을 지키는 작은 조각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온 가족이 제가 만든 이 비누향을 간직하면서 남편, 아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두 과장님께서도 감사 인사드리며, 올해도 지금까지 해주신 만큼 잘 부탁드립니다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이 비누로 올해 고민이 씻겨 지길 바라요."

허새잎 과장

제가 손재주가 없는 '똥손'인데요, 오늘 만든 비누를 가져가면 남편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줄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차례로 몸담았던 '홍보실'에서 만드는 사보에 출연하게 된 것도 정말 감회가 깊었어요. 작년에 피부병에다, 직접 지은 집 문제 등 고민거리가 많았는데요. 올해 이 비누로 그 고민이 깨끗하게 씻기길 기원합니다. 올해 2월부터 감사실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최 팀장님, 김 과장님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핸드메이드 비누라 애정템이 될 것 같아요."

김미리 과장

평소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비누를 잘 안 쓰고 액상 세정제를 주로 사용해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비누를 만드는 일이 새로운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직접 만든 거라 애정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마음만 먹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라 계속 꾸준히 지속하고 싶습니다. 4월부터 청렴도 기본 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최 팀장님, 허 과장님과 합심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보조공학기기 바로 알기

많은 이들에게 낯선 단어인 ‘보조공학기기’란 무엇일까.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장애인고용을 늘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주최하여 장애인 보조 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보조공학기기와 공단의 관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편집부



주차장에서 차량용(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의 시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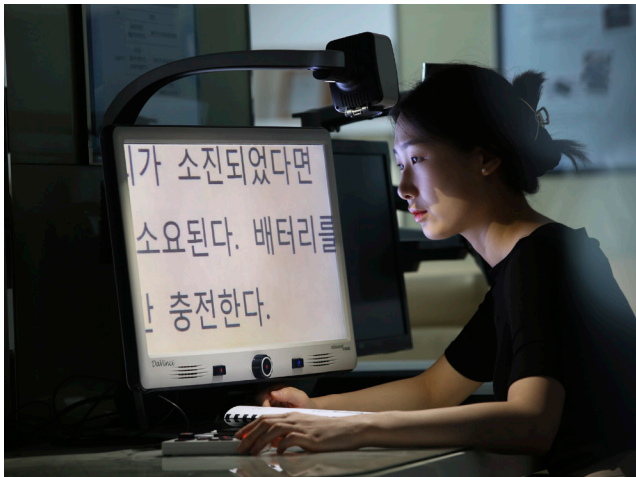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보조공학기기’란 공학과 전자기술을 활용해 노인이나 장애인의 재활 및 신체적 불편함을 돕기 위해 개발한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용 기기와 신체 조건이나 작업 환경에 맞게 디자인과 기능을 조정한 맞춤 기기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 기능성 의자, 골전도 보청기 등이 있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무수행 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구입과 대여 비용, 그리고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약 115억 규모의 예산으로 연간 7,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제공 중이다.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 원(중증장애인 2천만 원)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용되는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다.

지원 조건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6개월 이내로 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클릭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저시력 확대경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하는 모습



개인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시제품 예시

보조공학센터, 맞춤형으로 기기 제공

공단이 운영하는 보조공학센터에서는 좀 더 디테일을 살린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의 심층 상담과 평가, 사례 분석 회의, 사용 교육, 사후 관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한다.

보조공학센터의 핵심분야로는 맞춤형 보조공학 지원, 보조공학 연구개발(국산화) 및 보조공학기기의 품질관리와 정보 제공 등이다. 이로써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와 직무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더불어 보조공학기기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 및 보조공학기기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보조공학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보조공학센터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으며 상시 운영 중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들러 보조공학기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올바른 보조공학기기의 사용법을 교육받을 수 있으며, 방문만으로도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4차산업 관련 체험장 모습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관람 중인 방문객들의 모습

5월 말경,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공단에서는 매년 5월,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 및 대국민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내·외 보조공학기기 관련 최신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보조공학기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aT센터 1층 제1전시장에서 5월 26~27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장애인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과 유명 아이돌 그룹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전시 및 심포지엄,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상용 보조공학기기 전시관에서는 참관객들 편의성을 위해 테마별(장애 유형 및 품목)로 부스를 배치하고, 참관객의 박람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험형 부스도 운영한다. 혁신 기술 기기 전시관에서는 기존 보조공학기기 업체 외 첨단기술을 이용해 장애를 보완하는 기기 등을 전시한다. 특히,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2023 CES(세계가전 전시회)에서 혁신상 수상작인 '설리번A'도 선보일 예정이다. 설리번A는 인공지능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요약해주고 명함을 인식해 전화를 연결해주는 앱 서비스로 시각장애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국제 보조공학 심포지엄에서는 보조공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미국 외 보조공학 선진국의 연사를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 밖에 체험행사로 e-스포츠 체험, 드론 날리기 체험, 전시장 스탬프 투어, 장애인 스포츠 체험, 로봇 축구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보조공학센터 이용안내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타임스퀘어 오피스A동) 9층 보조공학센터

관람시간 매주 월~금(10시~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휴관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단 창립기념일(9월 1일)

입장료 무료

예약 안내 견학 희망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 예약 필요

대표전화 02-6321-8400

2023년 제18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슬로건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기간 2023.5.26(금)~5.27(토), 2일간

장소 aT센터 1층 제1전시장(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운영 50개 사업체(300점 전시)·기관, 약 180개 부스

스웨덴, 복지 예산 삭감에도 장애인고용 유지하는 이유 사회적기업 '삼할AB', 장애인 일자리를 지키다

스웨덴은 21세기 최고 복지국가로 세계에서 찬양받아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집(Folkhemmet)' 이념과
'요람에서 무덤(from cradle to grave)'까지 국가 책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도 신자유주의 도래와 위기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치 급변으로 복지국가 명성에 흠집이 생기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글 이정주 누림센터 센터장



중증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스웨덴 국영그룹 삼할의 근로자들 / 사진, 삼할

스웨덴 정부, 복지 예산을 줄이는 이유

탈산업화로 예전 같지 않은 경제성장, 급속히 유입된 이민자들에게 투입되는 복지비용으로 자국민, 특히 노인들은 복지가 축소될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이러한 위기의 구조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932년 이후 페르 알반 한손, 타게 엘란데르, 올로프 팔메로 이어지는 사민당의 황금기, 60년간 줄곧 40% 이상 지지를 받아 왔던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20%대로 내려앉아 있다. 한때의 부침인 듯싶어도 2023년 현재 스웨덴 사민당은 녹색당과 연정을 통해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할 정도로 위태로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이민자 축출과 노령수당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극우 민주당(SD)의 의석수가 눈에 띄게 늘어 가며 스웨덴의 정치 지형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스웨덴 국민이 전통의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버리고 우파의 길을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스웨덴 고유의 전 국민 복지, 국가는 곧 ‘국민의 집’이라는 공동체적 속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현재의 위기를 국민적 연대와 민족적 협력을 기울이는 데 많은 힘을 쓰고 있다.



스웨덴 지도로 노르보텐 주, 베스테르보텐 주 등의 지역이 있다.



스웨덴 민주당 로고, 극우이며 인종 차별 단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을 견인하는 법령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오히려 관련 법령을 제정, 개정하며 스웨덴 장애인의 존엄권, 인권, 생존권, 행복권을 충족시키며 사회참여와 활동, 고용과 일자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LSS(Law of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 with Certain Functional / Lag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법'이다. 해석하면 제정된 특정한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이다. LSS법은 1994년 제정되어 개정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LSS법 덕분에 스웨덴 장애인은 누구나 필요할 때 다양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일상생활은 물론 근로활동과 직업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보면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보조기기, 요양보호, 재활치료 서비스 등이 하나의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 역시 개인예산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장애인은 자기결정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 입장이 존중되는 스웨덴 복지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스웨덴의 높은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방식을 스웨덴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흥미로운 대목이다.

다른 하나의 법은 2008년 제정된 '차별법(Discrimination Act)'이다. 스웨덴 장애인고용률은 69%를 구가하고 있다. 스웨덴은 할당 고용방식, 의무 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가이다. 그런데도 높은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차별법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직업적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차별법 법안 3장 1절, '차별 예방과 차별 방지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그에 따른 특별 조치로서 '직장 내 차별 금지조항'은 스웨덴 장애인고용을 활발하게 견인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을 견인하는 법들은 다양하다.

정부 산하, 사회적기업 '삼할 AB'의 높은 성장세

이렇듯 'LSS법'과 '차별법'은 비할당고용제를 취하고 있음에도 어느 할당고용제를 택한 국가에 비해 높은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하는 기폭제이며, 장애인고용의 보편성을 법적으로 지켜내는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적 토대 위에서 스웨덴의 유명한 장애인고용기업 '삼할(Samhall AB)'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유럽 최고의 비즈니스 기업상을 획득하였다.

삼할은 1980년 스웨덴 안에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장애인 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적기업, 직업재활 시설 보호 고용 영역을 하나로 묶어 설립한 국영기업이다. 정확하게는 스웨덴 고용부 산하의 정부 출자기업이며 공식 명칭은 '스웨덴 사회복지 사업단 그룹'이다. 예산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지만, 삼할 자체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경영관리하는 철저한 기업 구조를 택하고 있어, 국가와 민간의 협력형으로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직과 운영을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다양한 워크숍을 통한 교육과 정보제공,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소개, 소규모 기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삼할(Samhall) 로고 이미지



삼할(Samhall)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모습

2023년 기준 전국에 700여 개 사업장에서 2만 493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 40여 개 국가의 130개 조직과 국제적으로 연대한 활동과 노하우 제공, 개도국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웨덴 장애인 인구, 75%가 경제활동 중

모든 기초단체 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학교 교육을 졸업한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삼할이다. 삼할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84% 정도가 '삼할이 없었으면 장애인의 취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경제계 지도자들의 89% 정도 역시 삼할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또한, 기업체 대표의 50% 정도는 삼할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노동자를 자신의 기업에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삼할의 노력 때문인지 스웨덴 통계청은 2019년 스웨덴의 장애인 인구 중 75%가 경제활동을 한다. 2013년부터 이어진 이 조사를 살펴보면 2013년 69%에서 2019년 75%까지 스웨덴에서는 매년 장애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고, 66.9%의 장애인고용률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2022년 현재 경제활동참가율 38.1%와 고용률 36.4% 머무는 우리나라를 비추어 보면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위기나 사회민주주의 몰락이니 하는 전언은 적어도 장애인고용 현장에 몸담은 우리에게 는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스웨덴은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아닌 비할당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확연히 나은 장애인고용 상황을 지켜나가고 있다. 복지국가 위기로 인해 사회복지 지원 구조에 다소 균열이 있어 보이는 스웨덴이지만,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의 장애인복지는 연금과 수당 중심의 현금복지를 벗어나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속하는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음료업계, 제로 칼로리 열풍 건강해서 먹는다? 맛있어서 먹는다!

바야흐로 ‘제로(Zero) 음료’ 시대다. 편의점이나 마트 음료 매대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버전의 제로 음료가 더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껏해야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의 몇 종만 놓여있던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어딘가 심심하고 맛없다는 평으로 외면받아 왔던 게 제로 음료였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제로 열풍이 불게 됐을까?

글 편집부



제로 칼로리 유행은 시대적 흐름

‘제로 칼로리 음료’란 고열량인 설탕으로 냈던 단맛을 인공감미료로 대체한 다이어트 음료를 말한다. 제로 칼로리의 단맛이 내는 대체당의 성분으로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이 있다. 이 대체당은 설탕의 감미도를 1로 가정했을 때 설탕보다 수백 배 더 달다. 고로, 극미량만 첨가해도 설탕과 비슷한 강도의 단맛을 내면서 동시에 체내에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 칼로리도 낮다. 물론, 완전히 칼로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0ml당 4kcal 미만의 극히 미미한 양일 경우 식품위생법상 0kcal로 표기가 가능하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에서 소비되는 전체 탄산음료 매출 중 제로 탄산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24.9%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 3조 8,160억 원 중 9,5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3년 만에 매출이 거의 5배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성장 속도라고 볼 수 있다. 제로 음료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2020년 말인데,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에 대한 반사 작용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인 남녀 비만율은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은 48%이고, 여성은 27%이다. 식품 섭취량에 비해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있어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은 피하기 힘든 성인병이다. 이러한 성인병이 설탕 섭취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일상에서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제로 음료가 주목받는 셈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설탕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장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을 포함한 약 85개국에서 설탕세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로 음료가 한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발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건강해서? Yes! 맛있어서? Yes, Yes!

물론 제로 음료의 유행이 단순히 건강에 대한 염려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제로 음료가 처음 등장하던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제로 음료는 확실히 ‘맛있어’졌다. 대체당의 단맛을 두고 화하기도 하고, 청량하기도 해서 뒷맛이 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제조사는 여러 종류의 대체당을 배합해서 설탕에 가까운 단맛을 구현해야 한다. 예전과 비교해 쓸 수 있는 대체당의 종류가 늘었고, 또 기업들의 레시피도 시간이 흐르며 진화했기에, 우리는 지금처럼 맛도 좋고 칼로리도 없는 제로 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제로 음료계의 영원한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코카콜라 제로’에 대한 맛 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웹시 제로슈거 라임’은 90%가 넘는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50%까지 떨어뜨렸을 정도로 제로 음료계의 명품으로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제로’ 바람은 비단 음료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주 업계까지 넘어와 더욱더 거세게 불고 있다.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레 주류 업계도 한발 빠르게 제로슈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와 하이트진로의 ‘제로슈거 진로’가 그 예다.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대체당을 첨가한 커피믹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작금의 흐름을 보았을 때, 앞으로 제로의 유행은 외연을 더 넓게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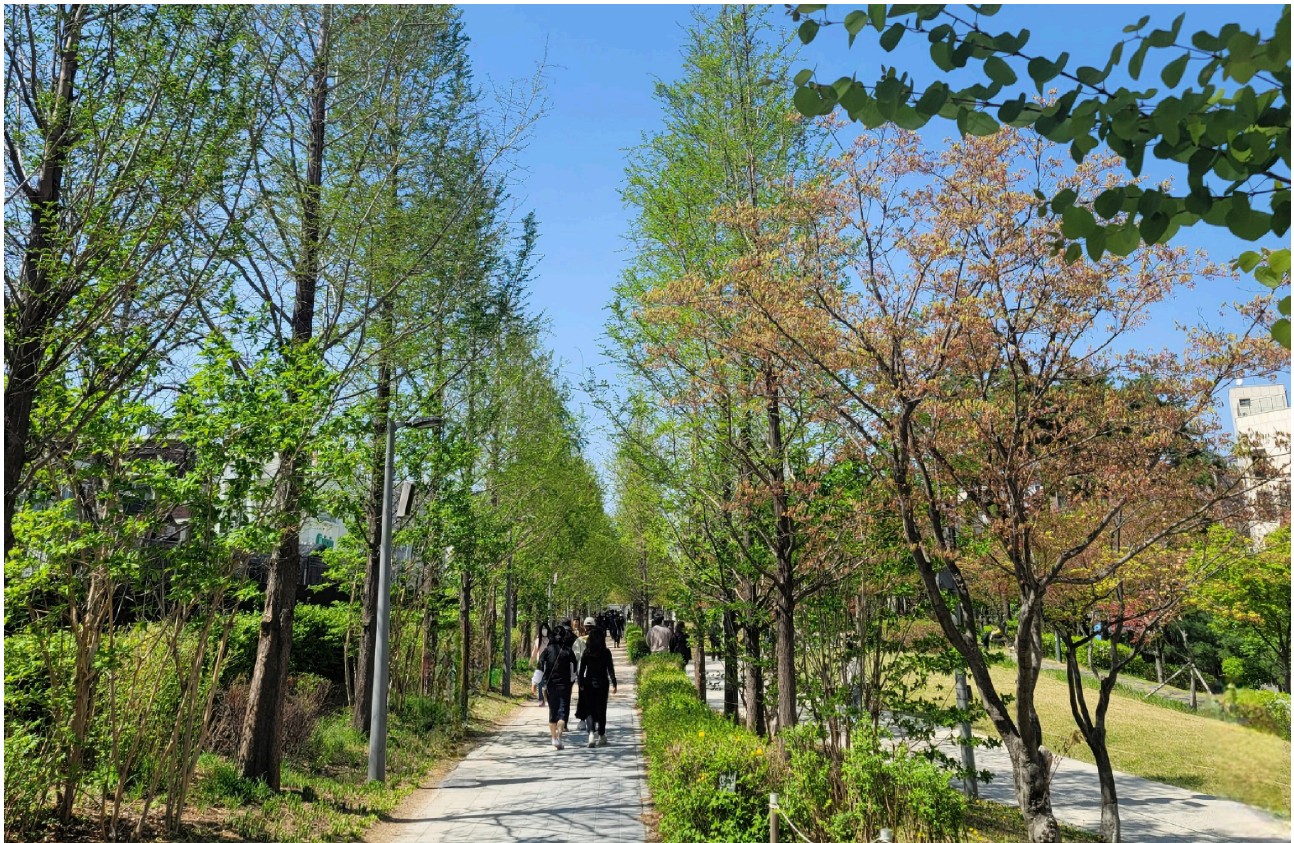
다이어트 중이거나, 당뇨를 앓는 사람들에게 있어 구세주와도 같은 제로 음료라지만 그래도 맹신은 금물이다. 기본적으로 탄산음료를 과다 섭취하면 뼈를 구성하는 칼슘 흡수율이 저하되고 배설을 촉진해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다. 또, 체내에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장 속에는 대체당을 양분으로 삼는 미생물도 있기에 수많은 제로 음료 역시 소화기에 좋지만은 않다. 이러나저러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비해 제로 음료의 위해성이 덜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도 물 대신 제로 음료를 마시는 등의 남용은 건강을 위해 삼가도록 해야 한다.

책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 서울 경의선 숲길

경의선 책길에서 연트럴파크까지

빌딩숲으로 둘러싸인 도심에서 자연을 즐기며 걷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마포구의 경의선 숲길이다. 젊은이들의 공간으로만 여겨지던 홍대 인근에서
조용히 산책하며 가족들과 반려동물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은 곳이다.

글·사진 문화진 여행작가(지체장애)



싱그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경의선 숲길 모습

누구나 산책하기 좋은 경의선 숲길

경의선 숲길은 지상으로 다니던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기존의 철길이던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거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유모차를 미는 사람도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다. 일부 구간은 포장된 길과 흙길 두 가지로 꾸며놓아 각자의 취향에 따라 골라 걷기에도 좋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별도로 없지만, 숲길이 끝나는 서강대역이나 중간지점인 홍대입구역 역사 내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 길을 가다 보면 산책길을 따라 주변 상가주택의 식당이나 카페와 이어져 있다. 대부분 턱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동행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잠시 들러 휴식해보시길 추천한다.

푸른 하늘과 책을 동시에 즐기는 곳

경의선 책거리는 경의선 숲길 일부 구간을 독서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길이다. 서울시 마포구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세상에 나온 책 한권의 가치를 통해 건강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마포구 출판 산업이 더욱 발전 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조성한 공원이라고 한다. 이 거리는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에서부터 서강대역까지 약 1.5km 정도 이어진다. 봄이면 꽃으로, 여름이면 푸름으로, 가을이면 울긋불긋 단풍으로 계절에 따라 산책하는 재미가 쏠쏠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산책로 양옆으로 키가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준다.

책거리를 가다 보면 예전에 실제 기차가 지나가던 철길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또 곳곳에 기차 모양으로 만들어진 테마별 부스가 있다. 이곳에서는 아트북 만들기, 나만의 글쓰기, 과학체험 놀이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어 산책길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테마별 부스는 휠체어 접근도 가능하다. 싱그러운 봄을 맞아 경의선 책거리에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도 즐기고 곳곳의 스팟에서 추억사진을 남겨보면 어떨까.

젊은이들의 감성충만한 곳, 연트럴파크

‘연트럴파크’는 경의선 숲길 중 연남동 구간을 일컫는 이름이다. 경의선 숲길 중 가장 긴 구간으로 미국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처럼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이 되면서 연남동의 이름을 따 연트럴파크라는 별명이 붙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국제적 명소이기도 하다.

연트럴파크를 가다 보면 중간마다 버스킹하는 청년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들의 음악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하다 보면 저절로 감성이 충만해지고 젊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 또 저녁시간 때 들르면 여기저기에 모여 앉아 캔 맥주를 즐기며 대화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진다.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절로 취하게 되는 것도 사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도 있다. 연트럴파크 주변으로 주택가가 많으니 조용하고 깨끗하게 공간을 즐기는 에티켓도 잊지 말자.

교통안내

연남동 구간 가좌역(경의선), 홍대입구역(2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와우교 구간 홍대입구역(2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서강대역(경의선)

신수·대흥·염리동 구간 공덕역(6호선), 대흥역(6호선)

새창고개·원효로 구간 효창공원앞역(6호선)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02-719-8830

알쏭달쏭 직장생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직장이란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면서도 온갖 고민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라서 직장에서 더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고민, 고충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과 일터]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 5월호에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수록 내용을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장애인과 일터]에 직장생활의 크고 작은 **고민과 고충**을 보내주세요. 내용이 소개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익명 참여’라고 적으시면 익명의 독자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단, 보내시는 내용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
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일 보내실 곳 jangteo@kead.or.kr 독자 의견에 남기기



Q. 저는 계약직으로 2022년 1월 군청 소속 행정 도우미 직에 입사했습니다. 원래 허리 지병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허리 신경 손상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제가 가지고 있던 병가 및 연차 총 21개를 모두 사용했으며, 앞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앞으로의 경제적 문제에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현 직장 입사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 근무 기간을 합산, 총 180일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진 퇴사일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은 상담자님의 몸 상태를 파악해야 하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퇴사 전 진단서’, ‘회사 담당자 확인서’, 현 건강 상태 ‘의사 소견서’입니다. 상담자님이 실제 실업급여 신청할 시점에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절차에 대해 재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Q.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식당에서 7년간 주방 보조업무로 일했습니다. 저의 4대 보험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2019년까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퇴사 시점)까지 근무지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고 하니, 사업체에서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조사관이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업주와 완만한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오랜 시간 동안 일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니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상담자님이 사업체 측으로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요청에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월급을 통장으로 받고 그전에는 현금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20년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의 월급명세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제출을 못 하는 대신 원천징수 영수증과 국민연금, 고용산재, 건강보험의 명세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은 일시불이 아닌 협의 하에 나눠 받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Q. 계약직으로 사무보조 일을 하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직장 상사가 동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잘 챙겨주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일을 못 하면 그만두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등의 폭언을 합니다. 이 말에 저는 퇴사 압박감을 느꼈고, 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 초조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지요?

A. 상담자님의 잘못이 아닌데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및 제107조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은 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여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괴롭힘과 협박의 물증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상담자님이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보직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주는 것도 장애 차별에 해당합니다.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여행 #바다 #뷰맛집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싶어서 부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찰랑이는 바다를 보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처럼 너무 더워지기 전에 다들 국내 여행 어떠신가요?

남○정 대리, 공단 소통협력실



#속초여행 #속초카페

친구들과 버리고 버리던 속초 여행을 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 속초 바다를 둘러보다 골목길에 한적하고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를 발견했어요. 카페가 마음에 들어 일정을 바꿔 바로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즉흥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쁜 일상을 잊고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게 되어 좋았어요. 다음에는 무조건 여성분이랑 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강○성 님



#봄 #등산 #소백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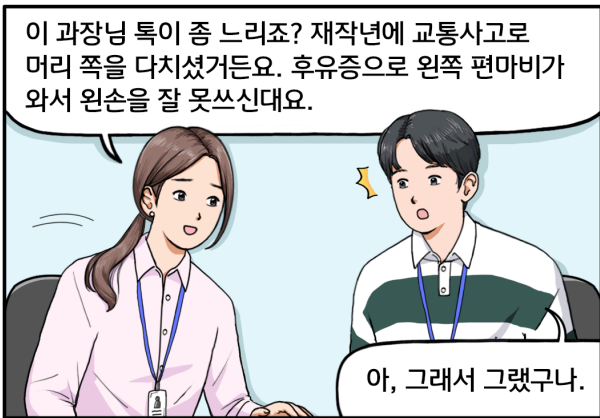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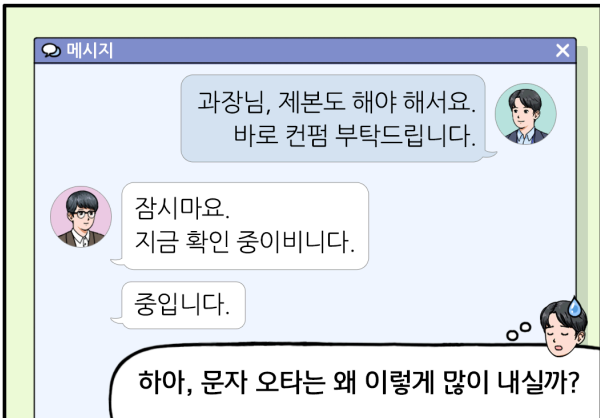
올봄은 벚꽃이 빨리 찾아왔다가 저버려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산에 올라가니 아직 벚꽃이 지지 않고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곳은 날씨가 때 아닌 눈과 비를 맞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 시작하게 된 등산을 어느덧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함께하니 그 기쁨과 행복은 두 배가 되더라고요. 5월 말에는 단양 소백산 철쭉제를 한다고 하니 꽃과 함께하는 등산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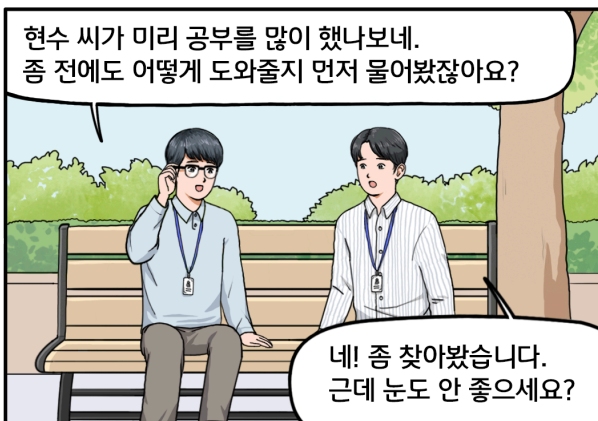
김○연 대리, 공단 고용컨설팅부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뇌병변장애인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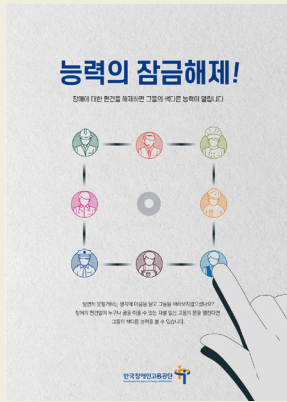
그림 권도연





KEAD 뉴스

제32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입상작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제32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최종 입상작을 발표했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4월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해왔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포스터디자인, 영상 2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접수된 114점의 응모작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 14점이 선정됐다. 포스터디자인 분야에서는 장성화 씨의 ‘능력자 잠금해제’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제하면 그들의 능력이 펼쳐진다는 메시지를 표현했다. 영상 분야 최우수작은 조준화, 박동희, 김태완, 이호경 씨의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가 선정됐다. 디지털 접근성 업무를 담당할 장애인 근로자의 모습을 담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냈다. 각 분야의 최우수작 수상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입상작은 추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신청만 하면 수상작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제10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지난 4월 7일 본부 4층에서 ‘2023년 제10기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제10기 내꿈내일 기자단의 시작을 알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기자단 활동은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라 오프라인 및 그룹별 활동에 중점을 뒀다. 현장감 있는 기사 작성을 위한 인터뷰 및 현장 취재, 그룹별 미션 부여를 통해 적극적인 장애인식개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한궁 기획관리이사는 이날 발대식에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한민국 선수단 덕분에 7연패 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기자단 개개인이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는 국가대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ead1)는 일평균 3,000여 명이 방문하는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 성장했다. 새로 활동을 시작한 기자단이 전하는 소식은 공단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내일과 내일을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실천하자는 의미의 ‘내일의 꿈을 잇다’를 표어로 올해로 33회를 맞는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하는 행사다. 철탐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탐산업훈장은 (주)포스코휴먼스의 김희대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부원초등학교 강제길 사서실무사가 각각 수상했다. (주)포스코휴먼스는 2007년 설립된 우리나라 제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확대운명을 통해 2022년 6월

기준 29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강제길 사서실무사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정부 사업을 통해 인천부원초등학교에 취업 후, 12년간 근속하며 도서 대출 및 도서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소중한 일을 가질 때 미래의 꿈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며,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주제인 ‘내일의 꿈을 잇다’의 완성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분들의 내일을 향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히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AD SNS 하이라이트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Instagram

haha_kead

2023년 장애인 고용관련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라면, 2023년 장애인 고용관련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주목해 주세요.



Instagram

haha_kead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심리지원 프로그램

취업 준비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N blog

blog.naver.com/kead1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섬섬옥수 PROJECT

전국 주요 철도역 내 네일아트 매장이 설립되어 여성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공과 인간의 색깔 있는 만남
철도역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섬섬옥수 PROJECT

함도 승차권이 있으면 네일 케어가 무뎠나요?



YouTub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안내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알고 계신가요? 들어는 보았는데 잘 모르겠다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확인해보세요.